

전남도, 섬진강·보성강 개발 왜 나섰나

자연환경 지키고 지역경제 살리기

“하천 훼손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 세계적 관광 자원... 지역발전 도움

전남도가 영산강에 이어 섬진강과 보성강 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전례의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는 이들 하천이 훼손된 채 방치된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 유역은 갈수기에는 물이 썩어들어가고, 이 때문에 인근 생태계가 크게 변화하는 등 자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이라는 명분을 달고 있는 섬진강 일대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리산·남해안 등과 연계된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도 전남도가 개발에 나선 이유로 꼽힌다.

전남도는 그러나 전라북도도와 경상남도 등 섬진강 유역의 또 다른 자치단체와는 아직까지 실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일단은 섬진강의 경우 광양 진상면~곡성 옥곡까지 95.6km 그리고 보성강은 화순군 주암댐~곡성군까지 26km만 개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섬진강과 보성강은 국가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가 관장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전남도에서는 우선 용역을 통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최종 결과물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고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남도는 또 영산강과 섬진강이 친환경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되면 또다른 국가하천인 탐진강에 대해서도 개발계획을 수립, 친환경 개발에 나서

전문가들은 섬진강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하천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4대 강과는 방향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섬진강은 가뭄, 홍수 등에 노출돼 있는 4대 강과 달리 보존상태가 상대적으로 좋고 수량이 풍부해다 홍수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대 강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해 제방을 쌓고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데 비해 섬진강은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강을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중점이 주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섬진강 정비사업

의 경우 ‘살리기’도 아니고 ‘개발’과도 차원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도 보존상태가 양호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만큼, 이를 더 발전시켜 보자는 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섬진강 인근 11개 시·군의 협의체인 ‘섬진강 유역 보존협의회’ 회장인 조형래 곡성군수도 “현재의 섬진강은 ‘보존’이 아니라 ‘방치’된 상태로 환경훼손이 극심하다”고 지적하고 “더 늦기 전에 친환경적인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섬진강은 길이 212.3km, 유역 면적 4천896.5km로, 전북 팔공산에서 발원해 지리산을 끼고 전북 남동부와 전남 북동부, 경남 사부를 지나 광양만으로 흐르는 강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남도의 젓줄로 잘 보전된 생태와 함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섬진강과 보성강을 세계적인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개발 계획이 본격 추진된다. 구례 사성암에서 바라본 섬진강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농가소득 양극화 심각

상위 20%가 하위 20%의 10배 넘어서

농가 소득 양극화가 심화돼 살자는 농가 상위 20%의 소득이 못사는 농가 20% 소득의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농업개발 정책에 따라 농가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에 따르면 1998년 7.2에 그쳤던 농가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07년 10.3으로 치솟았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가구(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도별로는 ▲1999년 8.0 ▲2000년 7.6 ▲2001년 8.0 ▲2002년 8.9 ▲2003년 16.9 ▲2004년 9.3 ▲2005년 9.3 ▲2006년 9.1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003년의 경우

하위 20%의 평균 소득이 368만3천원으로 급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이 이례적으로 크게 뛰었다. 또 2007년의 소득 5분위 배율(10.3)은 1995년(5.6)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한다.

양극화의 심화는 하위 20% 농가의 소득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상위 20%의 소득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위 20% 농가의 평균소득은 1998년 588만6천원에서 2007년 739만2천원으로

25.6%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상위 20% 농가는 4천252만6천원에서 7천601만1천원으로 78.7%나 늘었다. 특히 1995년과 비교하면 하위 20%는 805만3천원에서 739만2천원으로 소득이 오히려 8.2% 감소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제 농가가 체감하는 소득 감소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상위 20%는 4천511만1천원에서 7천601만1천원으로 68.5% 늘었다.

이는 무우과이리온(UR) 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 시장 개방의 피해가 저소득 농가에 집중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의 경우 19만 농가 중 1%도 채 못 미치는 865 농가만이 1억원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농가당 평균 소득은 2007년 말 기준 평균 2천75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부채는 농가당 2천930만원이다.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5년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95% 수준이었지만 2007년에는 72.5%까지 떨어졌다.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의 농가 소득은 하위 20%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47.9%에 그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중양도시계획위원회(부위원장 강양석) 위원들이 2일 오후 영암 호텔 현대 전당에서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도 제공>

J프로젝트 승인 전망 밝다

국토부 심의위 내일 2차 심의 앞두고 사업현장 방문

전남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J프로젝트) 개발계획 승인신청 심의를 앞두고 국토 해양부 중양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중도위)가 2일 J프로젝트 사업 현장을 방문해 중도위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J프로젝트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밝힘에 따라 이번 개발계획 심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위 소속 위원 3명은 이날 오후 전남도가 신청한 J프로젝트 개발 예정지구 중 2곳인 삼호(9.2km)·구성(21.8km)지구 현장을 둘러보고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강양석(홍익대)·백인길(대전대)·최영국(국토연구원) 등 중도위 위원 3명과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현장 방문에 참여했다.

이들은 현장 방문에서 J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대한 전남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문 결과를 중도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도위는 앞서 승인신청 14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J프로젝트 개발 예정지구 중 2곳인 삼호(9.2km)·구성(21.8km)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전남도로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중도위의 이날 현장 방문은 올해 초 중도위 일부 위원들이 교체됨에 따라 전남도의 최대 현안사업을 직접 둘러보고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전남도 측에서는 이번 중도위 방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때문에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일정에 없던 점심 시간을 만들어 30여분 동안 중도위원을 만담하고 J프로젝트 개발계획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도위 위원들이 지난달 심의 때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곧바로 현장까지 방문해 조사를 한 것은 전남도의 역점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애초 삼호·구성지구와 함께 조송지구 개발계획을 동시에 승인신청했으나 조송지구 간척지를 소유한 농수산식품부가 사업부지 양도양수에 난색을 보이면서 2007년 11월 승인신청 이후 중도위 상정까지 무려 14개월이 걸렸다.

중도위는 승인신청 14개월만인 지난 22일 J프로젝트 개발계획에 대한 1차심의를 벌였으며 오는 4일 열리는 2차 심의에서 통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J프로젝트 개발계획은 전남도가 사업지구(삼호·구성)만으로 축소하면서 중도위 승인 전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전남도를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혀 전망이 더욱 밝아졌다.

승영중 전남도 투자정책관은 “지금까지 늦춰졌던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중도위에 상정돼 앞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4일 열리는 중도위 2차 회의에서 개발계획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구성지구는 전경련컨소시엄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가 참여해 시너마타온·남도음식문화촌 등 ‘문화와 레저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며, 서남해안레저(주)가 개발하는 삼호지구는 허브·명상·시니어휴양지구 등 ‘건강도시’를 건설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라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4호,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공개모집 공고

전라남도도와 경상남도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전라남도도와 경상남도 공동으로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2월 3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임용가능직급·선발예정인원·주요업무내용

임용예정 직위	임용가능 직급	선발예정 인원	주요업무내용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청장	지방전임 계약직(1호) 또는 지방 관리관	1명	○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사무의 총괄 및 조정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전략 수립 ○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전략 수립 ○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2. 임용(계약) 기간
○ 2년(근무실태가 우수한 경우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3.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구분	자격요건	비고
학력기준 (1)	《(학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한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6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경력기준 (2)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원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학 력 (2) 경 력 (3) 자격증 (4) 실적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동시 가능
자격증 기준 (3)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임용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실적요건 (4)	○ 불투·국제비즈니스·IT·BT·R&D·관광역지 등의 투자유치분야 또는 이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 - 국내 유망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 또는 논문·저서 발표 -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외국인유치 등의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분야: 첨단산업·물류·자동차(부품)산업·IT·BT·R&D·관광시설·전자정보산업·국제비즈니스·NT·첨단문화산업·스포츠시설 개발 및 투자유치 분야와 도시기반 조성 및 개발·택지개발

4.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임용자격요건 심사 및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 2차 시험(선발시험위원회) : 적격성 심사(서류심사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한 전문경력 능력, 경력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결정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영양구사능력,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등

5.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2009. 2. 18(월) ~ 2. 20(금) / 5일간, 09:00~18:00까지
○ 접 수 처 : 전남도청 인력관리과(행정동 8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는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등기우편 수신처 : 우)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전남도청 인력관리과 고시훈련담당 개발정책지원 담당자 양
○ 제출서류(①~⑦까지는 정본, ⑧~⑩까지는 해당자만)
구분 | 서류명

구분	서류명
공 통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10,000원 상당의 전라남도 수입증지 첨부) - 기본원수자는 전남도청 1층 농림에서 구입하여 첨부 - 우편접수자는 우체국에서 10,000원 상당의 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첨부
	② 이력서 1부
	③ 주요경력 목록 1부(경력증명서 첨부 포함)
	④ 자기소개서 1부(A4 5매 이내)
	⑤ 직무수행 계획서(요약서 A4 3매 이내 포함) 20매 이내 1부 ⑥ 학위증명서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⑦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1통
해당자만 제출서류	⑧ 논문 및 연구 실적 목록 및 요약서 1부(관련 증빙 자료 포함) ⑨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 주의사항
- ①~⑩, ⑧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kr/exam/index.jsp>)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exam.gnd.net>) 시험정보 공고문상의 붙임 파일을 다룬 받아 작성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관련 경력 또는 실적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

6.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일 자 : 2009. 3. 5(목)예정 - 최종 확정 일정은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장 소 : 중앙공실(전남도청 행정동 9층)

7.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책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능력·지역·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실임액은 없으며, 하한액은 62,637천원임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400,000원의 개발정책지원보조수당을 지급함

8.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발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이 응시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직위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은 전라남도 인력관리과(061-286-3444) 또는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1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